

#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제전 돌아온다

###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나흘간 일정 내일 개막 8개 종목 4000여명 참가… 제주, 산악종목 출사표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제전인 제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오른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국내 종합대회로, 선수단의 경기력을 점검하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이 대회는 8개(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종목이 서울·경기·강원·경북·울산에서 분산 개최되며, 선수 2726명과 임원 1484명 등

4210명의 17개 시도선수단이 참가한다. 5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됨에 따라 개·폐회식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대회 종료 후 대한체육회 차원의 별도 종합시상이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스피드(1월 27-29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 전종별)와 바이애슬론(1월 28-31일, 대학·일반부) 등 2개 종목이 사전경기로 치러졌으며, 지난 11일 컬링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20일까지 본 경기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완화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동계체육대회로 지난 대회와는 달리 유관종으로 진행하며, 차준환(피겨), 황대현(쇼트트랙), 정동현(알파인) 등 주요 선수들이 참가해 풍성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악(아이스클라이밍) 종목에 2명의 선수를 출전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올해도 겨울스포츠의 명맥을 이어 나가게 된다. 올해 참가선수는 아이스클라이밍 리드/스피드 부문에 고흥구(제주관광대)와 허지광(제주관광대 입학예정) 등 2명이 출전한다. 둘은 지난해 열린 제103회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출전하게 된다. 제주선수단은 국가대표로 발탁된 고흥구와 허지광에

게 메달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고흥구는 제13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1위를 차지하며 2022년 청소년 국가대표에, 제4회 문경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2023년 청소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허지광은 2022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4위를 비롯 제103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산악) 아이스클라이밍 6위, 2022 전국 드라이틀링대회 일반부 속도 1위를 차지하며 2023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시범경기로 치러지는 산악(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은 오는 18일 경북 청송군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조상윤기자

# 2023 칠십리 춘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18-24일 서귀포 일원서… 도내 12개 팀 출격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인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2023 칠십리 춘계 유소년축구 페스티벌이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공동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효돈축구공원,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남원생활체육관주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에는 고학년(12세 이하) 62개, 저학년(11세 이하) 46개 총 108개 팀이 출전해 연평별 최강팀을 가리게 된다. 홈그라운드인 제주에서도 학교와 클럽팀 등 모두 12개 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U12 조편성은 서귀포FC(3조)를 비롯 외도초(4조), LOJE유나이티드

(5조), 대정화랑FC(6조), 제주동초(7조), 서귀포초(8조), 서귀포리더스FC(9조), 중문초(10조), 제주유나이티드(11조), 화북초(12조), 제주서초(16조) 등이다. U11에도 LOJE유나이티드, 제주유나이티드, 제주서초, 서귀포리더스FC, 서귀포초, 대정초, 화북초, 외도초 등이 출격한다. 경기방식은 고학년, 저학년 조별 4개 팀을 추첨으로 조를 편성하고 풀리그 방식으로 1차 리그를 진행한다. 2차 리그는 1차 리그 순위로 조를 편성해 새롭게 리그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에는 동계전지훈련을 겸해 전국에서 많은 팀들이 참가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halla.com

# KPGA 65년… 140곳서 대회 596개 열려 우승자 214명 중 최상호 통산 43승 '최다'

우리나라에서 프로골프대회가 처음 열린 1958년 이후 지난해까지 140개 골프장에서 596개 대회가 열렸고, 214명의 우승자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KPGA(한국프로골프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프로골프 대회는 1958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서울CC에서 진행된 제1회 KPGA 선수권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 최초의 프로골프 선수이자 KPGA 회원 번호 1번인 고연택춘 고문이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부터 2022시즌 최종전인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KPGA 코리아 투어는 65년간 596개 대회가 열렸다. 이 중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KPGA 선수권대회는 총 65차례 진행됐다. 한국 프로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사기업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대회는 '오란씨오픈 골프선수권대회'다. 이 대회는 1976년 동아제약이 자사의 청량음료 제품 홍보, 국내 프로골프 육성, 골프 붐 조성을

목적으로 창설했다. 596개 대회를 통해 탄생한 우승자는 214명이다. 한국 선수는 145명이고, 해외 국적 선수는 69명이다. 가장 많은 우승을 이끌어 낸 선수는 '한국프로골프의 전설' 최상호다. 최상호는 1978년 여주 오픈을 시작으로 2005년 매경오픈까지 국내 통산 43승을 달성했다. 박남신이 한국에서만 20승을 이뤄내 최상호의 뒤를 잇고 있다. 국내 다승자 3위는 19승을 기록한 한정상 고문이다. 1990년 팬텀오픈에서 조절상(65)이 대회 기간 내내 단 하나의 보기 없이 버디만 11개를 슈아내며 역대 최초로 '노보기 우승'을 일궈냈다. 노보기 우승은 현재까지도 조절상이 유일하다. 596개 대회를 치렀던 골프장 수는 총 140개였다. 이 중 해외에서 열린 대회는 5개로 일본에서 2회, 중국에서 3회가 진행됐다. 북한에서는 1회로 2007년 '금강산 아나티 NH농협 오픈'이 개최됐다. 조상윤기자 sycho@halla.com



골문을 열어 점혔는데…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킬리안 음바페(왼쪽)가 14일(현지시간)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 스타디움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상대로 열린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골을 기록한 뒤 네이마르와 함께 축하하고 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PSG는 결국 원반에 0-1로 패했다. 연합뉴스

# 대기고, 2연승 휘파람 본선 진출 확정 부산MBC 고교축구… 서울 광진 10-2 대파 서귀포고는 신라고에 3-2 역전승 1승 1패

허은제가 혼자 오버헤트트릭(4골)을 작성하며 맹활약한 대기고가 2연승으로 제54회 부산MBC 전국고교축구대회 예선판을 넘어섰다. 또 서귀포고는 김건의 극장골에 힘입어 역전승으로 본선 진출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대기고는 15일 경남 양산시 천성산체육공원 구장에서 열린 대회 예선 1조 2차전 서울 광진 U18과의 경기에서 4골을 성공시킨 허은제 등의 활약 속에 10-2 대승을 작성했다. 대기고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이 예전의 골을 시작으로 전반에만 7골을 퍼부으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골잡이 허은제는 전반 4분과 40분에 이어 후반 막판에 2골을 보태며 오버헤트트릭을 작성했다. 앞서 1차전에서 FC김해와 난타전 끝에 4-3으로 승리하며 2승을 기록한 대기고는 17일 서울JHL FC와 3차전이 예정된 가운데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어 3전 전승 조 1위로 20강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양산 디자인공원 구장에서 펼쳐진 예선 3조 서귀포고와 신라고의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 속에 서귀포고의 3-2 역전승으로 끝났다. 서귀포고는 전반 2분과 22분에 먼저 2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하지만 전반 35분과 전반 종료 직전 김은총의 골로 승부를 원점을 돌렸다. 후반 들어 양 팀은 승점 3점 확보를 위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이어갔다. 전반에 교체 카드 하나를 꺼내 든 신라고는 후반 들어 다시 3명이나 바꾸며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맞서 서귀포고는 기존 전력을 유지한 채 호시탐탐 신라고의 골문을 노렸다. 승리의 신은 서귀포고에 있었다. 정규시간 1분가량을 남긴 79분 '캡틴' 김건이 해결사로 나섰다. 회심의 결승골을 터트린 것이다. 그렇게 승부는 서귀포고의 3-2 승리로 막을 내렸다. 1차전에서 서울 중앙고에 패한 서귀포고는 1승 1패, 신라고는 2패의 예선 전적을 기록했다. 조상윤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정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한 아침 M&W 1부 8:05 해 불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태종의 신부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마녀의 게임(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시간탈출대 다이노맨 11: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김진표 국회의장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로이집 9:55 SBS 10 뉴스 10:30 고현이 보인다 11: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김진표 국회의장	8:00 딩동댕 유치원 9:35 터타와 쿼아 12:10 EBS 교육전당 14:45 한국의 물레길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6:25 한글문화 이야기 17:45 반퀴מן과 안전맨 18:00 생방송 뽀빠이 해결단 19:00 정글 플래닛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킹특선 별별다방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30 방과 후 초능력 15:00 상상꾸러기 꾸다 2 15:15 종이접기 3 15:30 매직펜던트 대모험 15:45 프리몬 원정대 16:00 사사간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3:00 영상앨범 산 13: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우리동심 몽계공화국 3(재) 15:30 TV 유치원 16:00 누누가 잘하나 17:00 일일당송 캐치 티니핑 17:15 꼬마공룡 코왕 17:30 돌진 예능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1	12:00 12 MBC 뉴스 12:25 꼭두의 계절(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인생여행 세계의 이색호텔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12 뉴스 14:00 전국 TOP10 가요쇼(재) 15:00 최강 1교시 16: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저녁뉴스 17:5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7:00 KCTV 뉴스 8:00 방송권원추경연대회 수상자 단독사입으로 추진, 61년 자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전전긍긍, 신문 또는 정보활용을 하라, 73년 활동력이 왕성하다 외부영입은 분주하다, 85년 일기를 통한 나의 장단점을 통해 내보는 것도 좋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내 눈에 콩깍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큐 인사이트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종의 신부 20:30 홍강동진 21:50 연모 23:00 연속 플러스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9:10 마녀의 게임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공감토크 소통의 고수 22:00 심야리뷰 23:20 꼭두의 계절(재)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뉴스 21:00 모범택시 리턴즈 운영 재계 스페셜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7:00 KCTV 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성훈입니다 12:00 CBS방송뉴스 14:05 송정미의 속복속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송부
<b>제주CBS FM 93.3MHz 90.9MHz</b>				
<b>TBN제주교통신 FM 105.5MHz 105.9MHz</b>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처처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신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6일	16일
	36년 문서관련 일은 기쁨이 있으나 자녀로 인한 근심이 있다. 48년 수입이 생기고 자녀가 방문하니 기분 상승. 60년 재물이 풍부해 새로운 사업의 구상에 활력을 얻는다. 72년 금전이 필요하다. 동남간에 가서 상의하면 좋을 수 있고 말띠가 귀인이 된다. 84년 부부공동 작업이나 직업은 전망이 밝다.
	42년 금년에 한 가지 결실을 해 보는 시간도 필요. 54년 매출이 증가되고 자영업에서 호조, 농업은 회복 된다. 66년 과다한 욕심은 금물, 태산을 뺄을 힘든 용도에 맞게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78년 착실히 하나씩 해결하다보면 결과가 좋아진다. 90년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날. 파식은 금물.
	43년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심도 다가온다. 55년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 능률이 배로 증가하기도 한다. 67년 시비나 구설이 오니 다루지 않는게 상책. 한국이나 풍물놀이 장터에 가서 해소. 79년 계획 속에 한가지는 꼭 이루도록 한다. 91년 동료나 이웃과 음식을 함께하거나 술자리를 즐기면 좋다.
	44년 차량임·부품임·수산업분야 몸이 분주. 56년 어려운 가운데 희망이 보인다. 자녀일로 고민이 생긴다. 화상조심. 68년 남 앞에 너무 나서면 주변이 시시. 미움을 사게 되며 적이 되기도 한다. 80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려면 때론 주경야독도 필요하다. 92년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형국이나 신중함 필요.
	45년 간섭을 상대는 참견이라 보니 시비조심. 57년 중책이나 책임을 다할 일이 주어지고 늦게까지 바쁘다. 69년 집안에 환경변화를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몸이 바쁘다. 81년 창업 시 품평회 시장조사가 필요하고 업종 선택이 최우선. 93년 함께 의욕하거나 축하모임에 가게 된다.
	46년 부락을 들어줄 이나 도움을 줄 일이 생기니 함께 나눔을 가져라. 58년 한 번 심폐한 경우에는 종이나 소개가 생기기도 한다. 기다림에 대답이 있다. 70년 덕을 쌓는 지혜가 필요. 봉사할 일이 생긴다. 82년 직업 또는 이성교제가 생기기도 한다. 94년 모임에 초대되거나 음식을 함께 나눌 일이 생긴다.
	47년 마음껏 활동을 하거나 의욕이 필요하다. 친목모임 약속이 진행된다. 59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늠이 인정된다. 71년 번달스런 마음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면 좋은 답이 온다. 83년 새로운 만남이나 직업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 95년 내 주장보다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